

큰스님 수행한담

걸림없는 자비심 생겨”



○ 1974년 7월 도선사 신행승가학원 개원식 사진. 앞줄 오른쪽 두번째가 설산스님.

그 순간 정신이 들면서 자성(自性)으로 돌아왔지요. 한암스님은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밥을 할 때 오래오래 불을 때고 뜸을 들여야 밥이 되지, 불도 때지 않고 밥을 먹으려 들면 그게 생살이지 밥이겠느냐”고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곧 점수돈오(漸修頓悟), 먼저 닦은 후에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지요. 그때부터 한암스님 말씀을 따르며 주로 <금강경>을 공부했습니다.

<금강경> 법신비상분(法身非相分)에 보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사구계승으로 말씀하시기를 ‘만약 모습으로써 여래(我)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써 여래

침입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늘 “마음을 찾기는 쉽다. 그러나 갖고 닦는 것이 으뜸이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때는 ‘마음 찾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나’ 했는데 지금은 갖고 닦는 것(保任)이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 마음을 찾는 것이 어렵지만 깨달은 뒤의 보림이 더 어려우니 정진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지금도 해(慧)를 얻기 위해 참선수행하는 사람은 많은데 보림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해를 잡고 닦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알 듯합니다.

일의일발(一衣一鉢), 두타수행은 수행

“마음 찾는 것도 어렵지만 깨달은 뒤 保任 더 어려우니 정진 게을리 말라고 알려주신 한암스님의 ‘점수돈오’ 이제 알겠어요”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래서야 체면도 위엄도 버릴 수 있겠더군요. 아무 집이나 들어가 염치불구하고는 “밥 좀 주시오”하고, 비로소 밥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거지는 아니고, 스님인데... 어서 들어오시오” 하는데,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지요. 교만을 버리고 하심(下心)을 하니 아무런 걸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자비스러워지니 상대방도 자비심으로 대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4년간 한암스님을 모시고 해계 때는 월정사(月精寺) 강원에서 경전공부를 하며 100한자를 성만했습니다. 해계 전날, 한암스님께서 해오(解悟)한 바를 알아보자고 하시며 운자로 신 해(諷), 갈 거(去)자를 내놓으셨습니다. 수좌들이 지은 글을 한암스님이 보고, 입승 탄웅스님께로 넘기는데, 한암스님이 넘겨준 글을 보신 탄웅스님께서는 간혹 “그렇다, 선제야”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空幻本無處 青踏不踐

“귀와 눈 아닌 마음으로 여래 듣고 보아야”

“집착하면 불행하고 허무 바로 보면 행복”

를 구하면, 이런 사람은 실패길을 행하는 것이므로 여래를 볼 수 없다(若以色見我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래는 진리이므로 진리를 눈으로 보거나 귀로써 들으려고 하면 진리를 터득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지닌 이 육신(肉身)의 눈과 귀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속의 여래를 보고 마음속 여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는 순간 마음은 보는 대상에 가 있고, 귀로 들으려고 하는 순간 마음은 듣는 대상에 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찾고 마음속 여래를 보겠습니까. 한암스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망상에서 벗어나 마음을 찾아야 한다는 가르

남자의 본분이라고 가르치신 한암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두타수행을 나섰을 때입니다. 상원사를 출발, 90리 길을 걷는데 해가 누엣누엣 지기 시작할 무렵, 시창기가 느껴졌습니다. 인가가 보여 밥을 얻기 위해 달려갔으나 물동이를 이고 사립문을 나오는 아나네를 보자 “밥 좀 주시오” 소리가 나오려다 말더군요. 한참을 더 가다가 외딴집의 토방을 얻어 잠을 청하고, 허기에 굶주리면서도 승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개울물을 몇 모금 마시고 양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속초 입구 초가집에서 밥을 빌어볼까 생각했으나 또 거절당할 것 같아 냉수 한그릇만 얻어 마셨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걷다보니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걸지도 앉지도 못할

超脫生死苦 洞澈三際去
공(空)과 환(幻)이 본래 없음이여 푸른 뿔뿌리를 지나네 신발이 쓸모없네 삼과 죽음을 훨훨 털어버리니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한갓 거추장스러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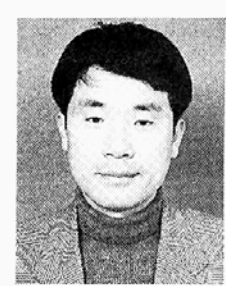
한암스님께서 몇 번을 소리내어 읊으시더니, “그래, 좋다. 용수좌는 통찰삼제거 했구나.” 이어 시를 보신 탄웅스님께서 “대답은 해서 두었느냐? 물러가라” 하시더군요. 청량산 선원에서 4년 수행이 끝나는 참이었습니다.

그후 해방과 6·25전쟁, 4·19의거, 5·16 군사쿠데타까지 역사의 격동기를 고스란히 살아오면서 가슴에 품고 간직해 온 것이 있습니다. 할아버님의 잃어버

정리=김정은 기자

4와 경전

정찰선악업보경



조용현 원광대 강사

이 경전은 전생의 업보를 알아보는 경이다. 전생에 악업을 많이 행했는가, 아니면 선업을 많이 행했는가를 살피는 경전이다. 쉽게 말하면 전생성적표를 열람하는 것이다. 금생은 전생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예를 들어 중학교때 반에서 꼴찌를 했다면 고등학교에 가서도 역시 성적이 좋지는 어렵다. 전생에 다른 사람 가슴아픈 일을 많이 저질러 놓고 금생에 좋은 꼴을 보면서 살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망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인생살이가 어찌 욕심대로 되겠는가. 그러나 중학교때 꼴찌했다고 해서 고등학교때도 역시 꼴찌한다는 법은 없다. 방장 안자고 죽어라고 공부하면 60등인 사람이 40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문제는 죽어라고 공부해야 한다는데 있다. 죽어라고 노력하지 않으면 역시 전생 습관대로 살기 마련이고, 그러다보면 꼴찌하기 쉽다. 전생성

이 바로 <정찰선악업보경>이다. 기록에 의하면 진표율사는 <정찰선악업보경>에 의거하여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였다고 한다.

이 경전의 특징은 전생의 업보를 알려 준다는 데에 있다. 불교신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전생이 무엇이었을까 한번쯤 궁금해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승들의 답변은 ‘금생에 하는 행동거지를 보면 너의 전생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야 백번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하근기 중생들의 처지에서 보면 너무나 추상적인 대답이 아닐 수 없다. 하근기 중생은 좀더 직설적이고 화끈한 처방이 필요하다. 그래야 신심이 생긴다. ‘너는 전생에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가난한 사람의 돈을 많이 횡령하였다. 그러나 매일 불전에서 천배씩 백일동안 참회하고, 양로원에 가서 의지할 데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옷을 일년

참회야말로 전생업보 바꾸는 첩경

하근기중생에 구체적 참회법 제시

적표를 바꾸기 위해서는 죽어라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정찰선악업보경>에서는 참회라고 가르친다. 참회야말로 전생 성적표를 바꾸는 첩경이다. 참회는 가슴으로 아는 길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은 지식의 차원이 아닌 진정한 앎의 차원이다. 지식만으로는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머리에 들어온 지식을 충진하여 다시 한번 로켓을 아래로 발사하여 가슴에 꽂혔을 때 눈물이 나온다. 눈물을 흘려야 참다운 앎이다. 눈물을 동반하는 참다운 앎이야말로 전생성적표에서 인간을 해방시킨다. 이는 참회에서 나온다. 참회없이 백날 선방에 앉아 보아야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이다.

내가 직접 해보니 그렇다. 머리보다는 가슴을 때려야 한다. 가슴을 치는 수행법이 참회법이고, 이 참회법에 바탕한 불교신앙이 미륵신앙이다. 진표율사 이래로 한국의 미륵신앙에서는 참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때 참회와 함께 단골로 등장하는 경전

간 ‘백래하리’ 등의 직접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인간은 자신의 전생 업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때, 구체적으로 참회할 마음을 내는 것 같다. 추상적으로 파악하면 아무래도 그 후속하는 추상적이기 쉽다. 구체적이어야 참회한다. 이러한 구체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정찰선악업보경>이 지닌 장점이라 하겠다.

경전의 앞머리에 참회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전생업보를 아는 수단인 목륜(木輪)을 먼저 짐을 치는 방법이다. <정찰선악업보경>에서 말하는 목륜의 모습은 이렇다. 나무를 깎아서 만든 동글고 속의 구멍은 네모나게 뚫은 것이다. 접전의 형태를 연상하면 된다. 목륜에는 10륜, 3륜, 6륜의 3종류가 있다. 과거세에 지은 선악업 종류의 차별을 짐치는 데에는 10륜을 사용하고, 과거세 업의 강약대소를 짐치는 데에는 3륜, 6륜의 삼륜을 사용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에 받는 과보의 차별을 짐치는 데에는 6륜을 사용하여 여기에 1에서 18까지 수를 써서 각각 이것을 던지게 하여 선악과락을 판단하였다.

정성으로 올린 한잔의 차, 기쁨과 여유를 함께 마십니다



녹수정산은 오직 정성으로 차를 다룹니다.

“고객 여러분께 깊은 여유와 만족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 소모임, 불자들의 신해모임, 도심 특별 법회, 강연회 등에 장소를 빌려드립니다.